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우상숭배 배격    제목 :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경: 다니엘 4장 28-37절  
 (TAG:우상숭배배격,권세,나라,하나님의통치)

28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32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느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엷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 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

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단4:28-37)

하루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었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았다.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수 있었고, 각종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각종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 후에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나무를 순찰하러 왔는데, 외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17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은 놀랐으나, 그 꿈을 해석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이고,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나가게 하시고 짐승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하시고 들에서 7년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리는 줄을 왕이 깨달을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해 지리라고 하였다.

26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정말로 느부갓네살은 1년 뒤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29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30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가 자기의 권세를 둘러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길 때 즉시 하나님의 계시가 작동되었다. 그는 정신이 나갔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들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며 지냈다.

그리고 7년이 흘러서 정신이 돌아왔고, 자기의 신복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1년 전에 계시하셨던 것이다. 7년동안 섭정을 하였던지 해서 왕궁은 무탈하게 지내게 하였고, 기한이 차서 다니엘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왕을 다시 모셔온 것일 것이며,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도 다니엘이 잘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

사람마다 제각기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잠16:9)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

## 루어지리라 (잠16:3)

왜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7년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말아야 함을 계시하신 것이다.

과거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었다. 모든 왕들은 권세가 자기의 것인양 착각하여 우민정책의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종종 먹혔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우민정책의 일환인 우상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욕심을 섬기는 것과, 거짓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민정책은 3s, 스포츠, 성 개방, screen-텔레비전)

그런데 거짓이란 숙명적으로 또 다른 거짓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만든다. 율법주의는 사람을 움아매고, 사회를 마비시킨다. 생각을 틀어쥐고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사고를 방해한다. 율법주의가 주는 틈새에 안주하면서 불행을 영구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율법주의의 실체이다.

율법주의는 또다른 우상숭배이다. 율법주의는 죽어버린 율법을 말한다. 율법은 복음과 같다.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율법+거짓이기 때문에 율법의 생명을 죽인다.

(간음하지 말라가 율법. 네 힘을 영똥한 곳에 사용치 말라는 법. 간음이 교묘하게 합법화 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율법주의. 거기에 빠지는 자는 불행하게 됨. 무함마드의 양자 자이드, 자이나브. 노예였던 자이드를 양자로 삼음. 귀족 자이나브와 결혼함. 무함마드는 자이나브를 사모함. 이혼을 부추김. 이혼녀와는 재혼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 때문. 그러나 며느리였기에 불가능함. 그래서 양자는 부모를 아버지로 부르면 앓된다는 율법주의가 추가됨.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므로 그녀와 결혼함. 이런 식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간음할 수 있는 율법주의가 됨. 유교의 법도 이런 논리로 율법주의가 되어갔다는 점.)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만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오직 복음만이 율법주의를 깨뜨린다.

모든 복음 중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성령님의 복음만이 그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죽어버린 율법을 살리는 복음은 성경의 복음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앞에 복종하고, 겸손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어떻게 율법주의는 사라지는가? 오직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만이다.

<찬양예배>

주제: 이슬람    제목: 이슬람의 베일을 벗긴다    말씀:  
신명기18:22, 예레미야14:14

22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 18:22)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렘14:14)